

# 주민과 토론...광산구 '작은 공론장' 눈길

### 임곡동, 쓰레기 불법투기 의제 운남동, 복합문화공간 속의 토론

광주 광산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와 소통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작은 공론장'이 사회적 대화 활성화의 밑거름 역할 톡톡히 하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1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임곡동과 운남동을 대상으로 올해 첫 '권역별 찾아가는 작은 공론장'을 운영했다.

주민들이 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판'을 광산구가 마련해 준 것이다.

대상지와 의제는 광산구의 시민참여플랫폼인 '광산ON(온)' 정책제안과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제기된 주요 현안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임곡동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테이블'에 올렸다. 지역을 찾은 외지인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나 농업 폐기물을 태우고, 농약을 합부로 버리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마을열기 워크숍' 형태의 1차 공론장을 가진 임곡동 주민들은 쓰레기 없는 임곡누리길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었다.

바쁜 농번기임에도 여러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로의 의견과 제안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이어진 2차 공론장에서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기본적인 재활용, 분리배출 등 실천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환경 감시단'을 꾸려 불법 투기 예방과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함께 한 광산구는 쓰레기 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안내판과 CCTV를 설치하고



광주 광산구 임곡동 주민들이 구청에서 마련한 '작은 공론장' 프로그램에 참여해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마을에는 영농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에 건의하기로 했다.

운남동 주민들은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목표로 대화에 나섰다. 첫 만남부터 5개 팀을 나눠 마을에 복합문화센터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등을 놓고 진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추진단'을 구성해 객관적으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욕구조사와 선진지 탐방 등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2차 공론장에서는 추진단의 활동 과제를 재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며, 운남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추진단은 이달말께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개 동의 작은 공론장 운영에는 광산구가 양성한 협치 퍼실리테이터(협치 촉진자)도 참여했다.

주민과 밀착해 내실 있게 속의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했다.

광산구는 작은 공론장과 별도로 도시재생공동체센터와 함께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모여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주민공론장 사이(42) 광산'도 진행 중이다.

관심 있는 의제로 4인 이상이 2회 모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전동킥보드, 기후 위기 대응 등 3개 의제 공론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주민이 힘을 모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경험은 작은 공론장의 가장 큰 결실"이라면서 "이러한 성과가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주제, 형태의 공론장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시, 주민자치활동 우수사례 전국 최다

### 전국주민자치박람회서 용봉동 '최우수상' 등 19개 수상

광주시가 전국에서 주민자치활동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하는 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해 광주지역 주민자치 활동 19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주민자치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해 주민 주도로 지역별로 추진되는 주민자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광주시에서는 82개의 우수사례를 제출해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등 6개 모든 분야 총 60개 수상작 가운데 최우수상 1개, 우수상 6개, 장려상 12개 등 총 19개 우수사례를 수상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다 수상 기록이다.

분야별로는 ▲주민자치 지산2동, 풍암동, 화정

3동, 매곡동, 삼각동, 용봉동, 월곡2동 ▲지역활성화 계림1동, 금호1동, 운암1동, 임동 ▲학습공동체 동천동 ▲주민조직 네트워크 지원1동, 농성1동, 치평동, 침단1동 ▲제도정책 서구 ▲특별공모 화정1동, 운암2동이다.

특히 북구 용봉동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으로 협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5개년에 걸친 중장기 마을계획을 수립한 점이 높게 평가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선영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며 "이번 박람회 성과를 계기로 앞으로 모든 시민과 이웃, 마을에 주민 자치가 빛나는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산구의회, '민주시민교육 조례' 간담회

###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활성화·지원방안 모색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재봉)는 최근 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민주시민교육 필요성에 공감하고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운영일 의원 주재로 정재봉 행정자치위원장, 조영일 의원, 강한솔 의원, 관계 전문가 및 활동가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해 해당 조례에 담긴 기본적인 토대와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듯 민주사회에

부합하는 시민역량 고취를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 통합·발전에 필요한 민주시민이 양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모았다.

운영일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시민사회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공론의 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시민교육이 아직은 낯선 개념이지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영일 의원은 오는 23일 개최하는 제276회 정례회에서 '광산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민선8기 공약 시민배심원제 운영 40개 공약 중 10대 우선과제 선정

광주 광산구는 "지난 14일 민선 8기 공약 시민배심원 35명을 위촉하고, 공약 실천계획 평가를 위한 '시민배심원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배심원제는 공약 실천 시민운동인 매니페스토 운동 중 하나로, 시민이 직접 공약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다.

광산구는 공약 수립과 평가과정의 투명성, 민주성 강화를 위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협약을 맺고,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35명의 시민배심원을 구성했다.

시민배심원은 12월 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본인별 토의와 현장활동 등을 진행한다. 공약 실천계획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논의해 최종 권고안을 광산구에 제시할 계획이다.

또 ▲소통으로 친근한 행정 ▲상생으로 튼실한 경제 ▲참여하며 나누는 복지 ▲문화관광 꽃피는 도시 등 민선 8기 광산구의 4대 분야 40개 공약 중 우선 추진해야 할 10대 공약을 선정한다.



지난 14일 광주 광산구청 7층 운상실에서 열린 '2022 광산구 시민배심원 위촉 및 첫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들이 철저한 공약 이행 점검 등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광산구는 공약 실천 의무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8월 19명의 시민이 참여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공약 실천

계획 수립 과정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난 10월 초 민선 8기 공약을 확정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찾아가는 공유재산 현장지원센터' 운영

### 평동·임곡·동곡·삼도·본량 5개 동...민원 처리 소요시간 단축

광주 광산구는 "18일까지 평동·임곡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 등 5개 동에서 '찾아가는 공유재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5개 동에는 광산구 공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농경지가 소재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광산구 소재 구·시유지는 총 519필지로, 이 중 74%에 해당하는 385필지가 도심에서 떨어진 평동·임곡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에 있다.

광산구는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경작자 대부분이 중·장년층으로 구형 방문이나 민원 신청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20년부터 대부 계약 만료 일자가 집중되는 연말을 앞두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유류재산 대부, 갹신, 매각 상담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일 공유재산 대부

신청서, 계약서 작성을 도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민원 처리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주민과 동행한 현장조사를 통해 민원을 해소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능동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시민의 편의를 위해 향후에도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침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